

헤겔이 본 哲學과 時代의 關係(三)

安浩相

哲學은 論理的 理由로서 그 論理的 結果인 時代를 썬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마츨내 哲學이 時代의 論理的 理由인 새문에 絶對로 時代를 썬어 나며 썰어질 수가 업는 것이다. 事實界에선 理由와 結果가 서로서로 썬러져 잇슬 수가 있다. 웨 그러냐면 「이란 理由가 잇지만 아모 結果가 업는 수도 잇스며 썬 「이란 結果는 「이란 理由썬만으로서가 아니라 썬 다시」 이란 理由로부터도 되는 수가 잇는 새문이다. 하나나 論理界에선 썬허이와 反對이다. 理由는 必然的으로 結果를 끌고 들며 結果는 만드시 理由를 아페둔다, 理由는 언제든지 結果의 理由요. 結果는 만드시 理由의 結果이다.(百科, 一四〇頁)理由가 업는데선 結果조차 업스며, 結果가 업는데선 理由조차업는 법이다. 結果는 다만 理由의 속에서 잇스며, 「理由는 結果의 속에서 비로소 實在的이며 理由이다」(百科, 一五一頁)理由와 結果가 비록 이름이 다르며, 말이 들이지 그 根本에 드러가선 오죽 한 덩이다. (百科, 一五〇—一五六頁)哲學업는 時代와 時代업는 哲學은 理由업는 結果와 結果업는 理由와 갓다. 或은 우에서 헤겔이 말한 것과 가티 哲學업는 時代는 精神업고 속몸 업는 것 가죽 썬이며, 썬 時代업는 哲學은 것 가죽 업는 속몸과 가틀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과 時代는 서로 서로 썬러져선 되지도 아니할 썬더러 썬 썬러져 잇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서로 붓삼으며 도와주어 낫낫의 저보담 더 높고 큰 全體와 統一을 形成하는 두 契機들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으로서 哲學이 어셔한 意味에서 저의 時代를 「썬어 날 수도 잇고」 썬 「썬어 날수가 업다」는 것이 밝게 되엇슬것이다. 곳 말하면 哲學은 時代의 精神으로서 時代를 制約하며 時代에 매이지 아니 하얏슴으로서, 時代를 썬어 날수가 잇스며 썬 時代는 업는 것이 아니라 事實로 잇는 것 임으로서, 哲學은 만드시 時代속에서 드러 잇슬 것이다. 哲學과 時代는 因果性의 두 契機들을 만드러 내는지라. 時代를 理解코져 하는 者 哲學을 썬나서

안될 것이며, 또 哲學을 探究하는 者 時代를 섭적보며 지내보지 못할 것이다. 哲學은 꿈 世界에서 써도는 것이 아니라 現時代에서 뿌리 받은 것이며 哲學의 참된 理解는 空想的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活動的 理性으로서 될 것이다. 活動하는 理性은 그 무엇을 알고저할 적엔 결코 그것이 것꼴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속뜻조차 아라야 滿足을 느끼며 또 그 참된 속뜻을 알려고 그것 꼴부터 아라 간다. 그 속뜻을 모르고 그것 꼴만 아는 것은 곳 것으로만 아랐고 속으로 몰랐스니, 그것은 참말 안것이 아니라 모른 것이며 속뜻은 결코의 속에 잇는 지라. 것꼴을 모르고는 그 속뜻을 알기에 어렵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時代를 속속드리 알려면 哲學을 써나 안될 것이오. 또 哲學的 認識에 이르고저 해서 이 時代로부터 써나야 될 것이다. 이 써남 은 두 뜻을 가졌다. 一, 時代로부터 出發함이오. 또 二, 出發한 時代를 써나 답니다. 時代의 現象은 哲學의 照象이오. 또 時代의 思潮는 哲學의 發言이다. 비치 업섯든들 비침 인들 어찌 되며 말하는 이가 업섯든들 말할 수가 잇슬 소냐. 비취을 보고야 빛의 存在를 알게 되며, 말을 듯고야 말하는 이의 存在 를 알것이다. 그럼으로 哲學은 時代의 思潮를 可能케하며 또 時代의 思潮는 哲學의 存在를 깨닫게 한다.

이것으로서 哲學과 時代의 關係를 얼마간 理解할수가 잇슬 것이다. 時代는 哲學을 제의 精神과 眞理를 삼음으로서 그는 價値 업고, 참이 업는 것이 아 니라 도리어 價値의 實現者요. 眞理의 發表者이다. 哲學은 時代를 거느리며 規定하는지라. 그는 힘 업고 함 업는者도 아니며, 또 그는 複雜한 時代로부 터 만흔 營養素를 攝取하는지라. 그는 조금도 피곤하며 衰退함이 업고 오즉 活氣와 發展만 갖게 된다. 哲學이 힘 업슬 적엔 時代는 죽을 것이오. 哲學이 죽을 적엔 時代는 썩을 것이다. 함으로 哲學의 否定은 時代의 否定의 必然性 을 宣言함이며, 또 時代의 肯定은 哲學의 肯定의 必然性을 證明함이다. 마츨 내 時代는 그 다른것이 아니오. 다만 哲學의 反響인 새문에 우리의 意識에 큰 影響을 줄 수 잇고, 또 우리의 意識은 時代를 싸를 수가 잇다. 아니 事實 上 우리의 意識은 時代의 影響을 無限히바더서 時代의 產物이라고 짜지 할 수가 잇는 것이다. 혹은 헤겔의 말과 가티 「個體는 제 時代의 아들이라」 고 짜지 할 수가 잇는 것이다.(끝)